

양돈인의 전문조합 부산경남양돈조합을 찾아



▲ 부산경남지역 전업양돈농가들의 총구심체인 부산경남양돈조합의 청사 전경. 지하엔 축산물 종합판매장도 설치되어 있다.

양돈협회 김해지부가 설립 모체

지방화시대를 맞아 활약상이 매우 돋보이는 양돈인의 전문조합인 부산경남양돈조합을 찾았다. 최근에 육가공공장을 준공하고 안락동 지소 등 3개지소를 잇달아 개점해서 인지 조합장을 비롯해 조합직원들의 표정에 흥분이 채 가지지 않은 듯했다. 이제 동 조합은 양돈인의 전

문조합으로서 뿐만 아니라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역사회에서도 없어서는 안될 귀한 존재로 부상했다.

부산경남양돈조합(조합장 : 박철근)은 83년 6월 양돈협회 김해지부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했다. 당시 김해지부 회원들은 '79년의 극심했던 양돈불황 경험과 중간상인들의 농간과 횡포에 따라 제 값을 못받는 등 피해를 입자 계통출하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효과가 좋아

경제사업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뜻있는 회원들이 조합을 설립한 것이다. 따라서 오늘의 양돈조합의 설립 모체는 양돈협회 김해지부이다.

동 조합은 '83년 6월 농림수산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그해 11월 축협중앙회에 회원조합으로 가입했다. 초대조합장은 박재근씨였다. 이어 성장을 계속해 84년 12월에 자립조합으로 승격되고 87년 10월 종합청사 준공과 함께 신용업무를 개시

했다. '89년 12월엔 복지조합으로 승격되고 '90년 3월 4대조합장으로 박철곤 현조합장이 취임한후 ▲90년 7월 축산물 종합판매장 개장 ▲90년 12월 안락동지소 개점 ▲91년 2월 서동(부산)지소 개점 ▲91년 3월 육가공공장 준공 및 남산동지점을 개점하는 등 말 그대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왔다.



▲집무중인 박철곤 조합장의 모습

유자격 양축농가중 98.3% 조합원으로 가입

관할지역은 부산시와 경남일원의 27개 시군이다. 부산과 경남에는 23,800호의 양돈농가에서 518,000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현재 유자격 양축농가 614호중 98.3%인 603명의 양돈농가가 조합에 가입해 있다. 이는 동 조합이 명실공히 부산·경남 전업양돈농가의 총 집합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합원들이 사육하는 돼지는 25여만두로 부산·경

남의 사육두수중 약50%를 차지한다. 그러나 조합이 본래 경제적 약자들의 협동체인만큼 가입자격을 완화해 소규모 양돈농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동 조합은 조합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 육성을 통해 ▲조합원의 공동이익 도모 ▲양돈업발전의 모체 정립 ▲국민체위향상 기여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현재

조합에는 박철곤조합장의 10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조합에서 하고 있는 주요사업은 배합사료와 축산기자재·동물약품 등 공동구매사업, 돼지계통출하·포장육 등 판매사업, 돼지고기나 쇠고기 포장육 생산 등 육가공사업, 신용사업 등 크게 4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1년간 조합원수 50% 증가

동 조합은 '83년 설립이후 꾸준히 성장해 왔으나, 지난해 3월 조합원의 직접선거에 의해 박철곤조합장이 취임하면서부터 급격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83년부터 '89년까지를 기반구축기라 한다면 '90년부터는 고도성장기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즉 '90년도에는 총사업 규모가 '89년대비 무려 154%나 신장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둔 것을 비롯, 지난해 3월 박조합장 취임당시 400명이었던 조합원수가 만 1년만



▲ 지난 3월 8일 준공한 육가공 공장 전경

부산경남양돈조합을 찾아



▲ 부산경남양돈조합은 지난해 말과 금년초에 조합최초로 3개지소를 개점했다. (사진 아래 왼쪽은 남산동지점, 오른쪽은 조합사무실 내부)

에 50%가 증가한 603명이 되었다. 또한 작년 7월에는 청사지하에 축산물 종합판매장을 개장한 것을 비롯해 조합최초로 작년 12월에 안락동지소를 개점하고, 금년 2월과 3월에 각각 서동지소(부산)와 남산동지소를 개점했다. 안락동지소는 금융점포 50평과 생활물자판매장 50평을, 서동지소는 금융점포 60평과 생활물자판매장 90평, 남산동지소는 금융점포 50평, 생활물자판매장 50평을 갖추고 신용사업과 판매사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 3월에 육가공공장 준공

특히 금년 3월 8일에는 김해시 어방동에 1일 돼지 50두와 소 30두를

가공할 수 있는 육가공공장을 준공했다. 유통구조를 개선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정부의 유통구조개선에 동참하기 위해서란다.

육가공공장은 대지 545평에 건평 315평으로 12억9천6백만원을 들여 착공 8개월만에 완공했다. 이 공장은 초현대식 자동포장기와 최신냉동설비, 냉동차량(2대) 등을 갖추고 있다. 냉동설비는 171평으로 200톤의 포장육을 보관할 수 있다. 육가공공장에서는 포장육을 생산해 축산물 종합판매장과 3개지소, 회원조합, 대리점 등을 통해 판매할 예정이다. 또한 금년중에 2차로 육가공공장을 증설해 햄, 소시지, 바베큐, 육포 등 육가공제품을 생산하고 돼지고기 수출도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동 조합은 연간 12만두

의 조합원 돼지를 조합을 통해 부산의 동원산업과 태강산업에 계통출하하고 있다. 동원과 태강에는 직원 3명을 파견해 조합원들이 돼지의 수탁과 관리는 물론, 대금정산까지도 맡아 처리해주고 있다.

또한 조합원들에게 사료를 싸게 공급하기 위해 지역조합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월 3,000톤의 사료를 공급하고 있다. 연초에는 지난해의 이용실적에 따라 이용고 배당도 해준다. 조합원들에게 공급하는 사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조합내에 사료품질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경상대에 연간 700만원의 용역비를 주고 수시로 사료검사를 하고 있다.

신용사업은 매년 큰 신장을 보이고 있는데, 91년 2월말 현재 138억

원의 수신고(예금)를 기록하고 있다. 이중 103억원이 대출되었고, 대출금중 60~70%가 조합원들의 생산, 시설자금 등으로 대출되어 안정적인 양돈업경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협회와 조합은 경쟁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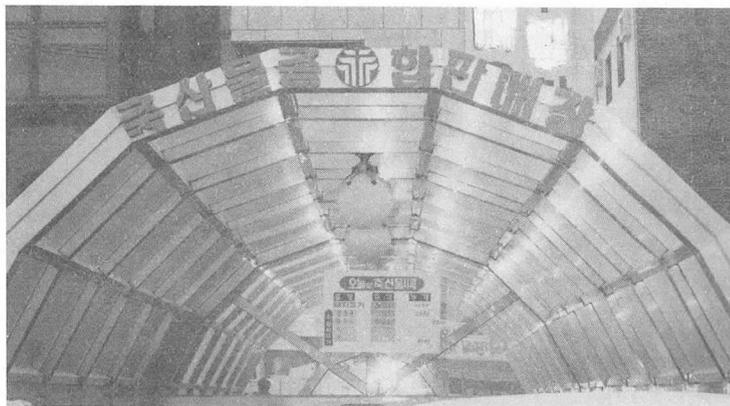
이와같이 부산경남양돈조합이 활발한 사업을 전개하면서 조합원들에게 많은 경제적 이득을 주자, 관할구역내의 양돈농가들이 스스로 조합에 가입, 스스로 조합을 이용하고 있다. 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30만원 이상을 출자해야 하는데도 지난해 1년동안 무려 200여명이나 가입한 것이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지난해엔 축협중앙회 산하 126개 조합중 사업실적이 전국 8위에 랭크되는 등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동 조합은 앞으로도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해 유통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는 한편, 배합 사료공장과 도축장을 설립해 명실공히 생산에서부터 - 판매 - 도축 - 가공 등 전단계를 장악, 조합원들의 생산비를 절감시키는데 최대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가끔 양돈업계 일각에서 양돈협회와 양돈조합을 경쟁관계로 보는 경향도 있으나 이는 매우 잘못된



▲ 조합내에 설치된 사료품질관리위원회 회의 장면



▲ 조합청사에 설치된 축산물 종합판매장 입구.

된 시각이라고 박조합장은 말한다. 박조합장은 「양돈협회는 양돈조합의 설립모체로서 경쟁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강조했다. 즉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경제적 이득을 주는 경제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는 대신, 양돈협회는 조합이 할 수 없는 농장외적인 정책개발사업, 소비홍보사업, 교육사업, 연구조사사업 등을 하기 때문에 경쟁관계가 아니라 조합의 방패와 울타리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박조합장은 조합에 이익

이 발생하면 협회에 자금을 지원, 협회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곧 조합과 조합원, 나아가서는 양돈산업 발전을 위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부산경남의 전문 양돈인들로 구성된 부산경남양돈조합이 지방화시대를 맞아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으로 조합원들에게 경제적 이득을 주고, 지역사회 발전과 양돈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되길 기대해 본다. (星)